



· 燃料캡 發明的 先頭走者 월드 크라운 金正煜 사장



〈金正煜 사장〉

'86西獨國際發明展 銅賞 수상에 이어 '87제네바國際發明展에서 金賞을 수상한 월드 크라운 金正煜 사장은 대학졸업후 6년여의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發明에 관심을 갖고 發明에 몰두했다.

그러나 事業性이 희박해 無爲상태에 있다가 문제의 「多目的 燃料캡」 發明에 成功했다.

『일단 自動車 키(Key)를 착상한 후에는 키를 부착할 곳이 문제였지요.』

金사장은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 놓는다. 機械분야에는

門外漢이었기 때문이다. 機械專攻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청계천 機械商들의 협조를 모은데서야 비로소 構造學的 見本품을 製作할 수 있었다.

『製品開發에 착수했을 때는 집안 채값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행착오를 거듭하다보니 開發費가 의외로 많이 소모되어 집 두채값을 투입해야 했지요.』

金사장은 그나마 두번째의 집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5개월의 공백기간을 갖는 곤욕을 치려야 했고, 이 공백기간으로 급기야 製品生産이 지연되는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런 金사장에게 確信을 준것은 試製品이었다.

1천개를 만들어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에게 선을 보였다. 3개월 예정이었는데 20일만에 매진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KOEX에서 '86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가 있어 出品展示를 했는데 이때 이 製品의 人氣는 실로 대단했다.

『自動車키를 분실했을 때의 난처함은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요. 저 역시 몇차례 키를 잃고 찢절했는데 이것이 동기가 되어 이 發明을 하게 됐지요.』

金사장의 發明 동기 만큼이나 일반소비자들의 구매 동기도 간절했다. 국내 오퍼상을 통한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이었고, 商談 벨럭스가 쇄도하였다.

이때부터 밤에는 日本·美國·프랑스·대만등지의 商談으로 분망해져 밤잠을 설치는 경사가 계속되고 있다. 製品開發 당시까지만해도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의욕이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의욕만큼이나 희망 또한 있다며 金사장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金사장은 이미 국내는 물론 美國 등 先進 7個國에도 特許出願을 마쳐, 이제 머지않은 날에 全世界의 自動車에 「Made in Korea」라는 글자도 선명한 자신의 發明品이 부착될 것이라고 하늘같은 꿈을 펼쳐 보였다. <○>

第40回 發明教室

6月 13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6月 13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40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월드 크라운 金正煜 社長과 유디...○
- ...아 미네랄 柳在滿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
- ...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朴鎔碩 記〉...○

미네랄의 元祖 發明人

유디아 미네랄 柳在滿 社長

「당신의 理想을 위하여 참 봉사 할 때 보람을 얻게 된다」는 뜻을 가진 유디아(Youdea)운동과 건미 생활(健美生活)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디아 미네랄 柳在滿 社長.

柳사장은 14세때부터 25년간 發明과 함께 살아온 외길 人生이다.

아이디어 박사 또는 特許박사로 불리우는 柳사장의 發明品 미네랄은 자신이 均생활 때 몸을 다쳐 애 먹은 고통을 흘려버리지 않고, 자연 界의 生態原理에서 힌트를 얻어 人體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 미네랄 이란 것을 확인, 가장 순수하고 흡수성이 좋게 만드는 方法을 發明했다.

이 方法에 의해 製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미네랄 음료수·미네랄 건미비누·미네랄 비료라는 것이다.

柳사장은 미네랄을 동물로부터 추출 製造하는 方法(特許 16025號)과 이를 생수에 첨가하여 만드는 미네랄 음료수(特許 16024號)를 비

롯하여 미네랄 건미비누(特許 19587號)와 무기질 비료(特公 87-624)등을 發明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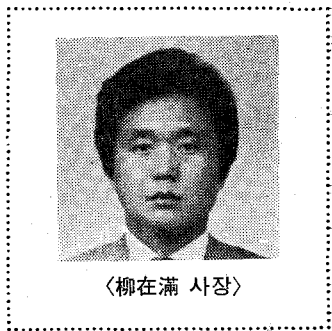
14세에 發明界에 뛰어들어 「타작 후 곡식의 껍질을 날리는 기계」로 特許를 얻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나이에 發明人이 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柳사장의 發明品은 자그 만치 150여건이나 된다.

『수많은 人間이 自然的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開拓하기 위해서는 個個人의 소유인 두뇌자 원을 開拓하는 것이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萬物의 所有者가 되며 幸福한 人生을 누릴 수 있지요.』

이렇듯 柳사장은 항상 研究하는 자세로 살고 있다.

청주공고를 거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를 졸업한 그는 재학 기간동안 特許法律事務所 및 各 生産會社에서 일하면서 學資金을 마련하기도 하는등 항상 研究하는 자세로 살아왔다.

『모든 人間은 幸福의 根源인 건강과 아름다움의 지속이라는 목표



〈柳在滿 社長〉

를 향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해 왔지요.』

이에따라 미네랄 관계 特許가 모두 實用化될 수 있었다는 柳사장의 설명.

柳사장의 미네랄 음료수는 「스타 미네랄」이란 제품명으로, 미네랄 비누는 個人用 「피보」와 專門業所用 「에스테틱프로셀트」라는 제품명으로, 미네랄비누는 「활성무기질 비료」라는 제품명으로 市場에 나와 있다. 또 本會 常設展示館인 發明 獎勵館에도 展示되어 오는 10月 14 日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